

대행 스님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느냐

오늘 점안식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창건주 되시는 윤 선생님께서 불심이 강하고 또 마음의 불씨가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설법을 한다기보다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부처님을 참되게 모시고 이렇게 점안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해서 그 모습을 딴 몸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기에, 또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없다면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사륜 소생이 아니라면 우리 몸속에 사생이 들어 있지 않고, 사생이 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한마음이 있고, 한생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한생각 일으킨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이는 만날 저런 말만 해!'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끄달리니까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 뜻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살림살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이며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끄달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님으로써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생명 없는 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런 법상도 움죽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거든지 살아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은하계의 별성이 돌아가듯 우리 몸뚱이 속에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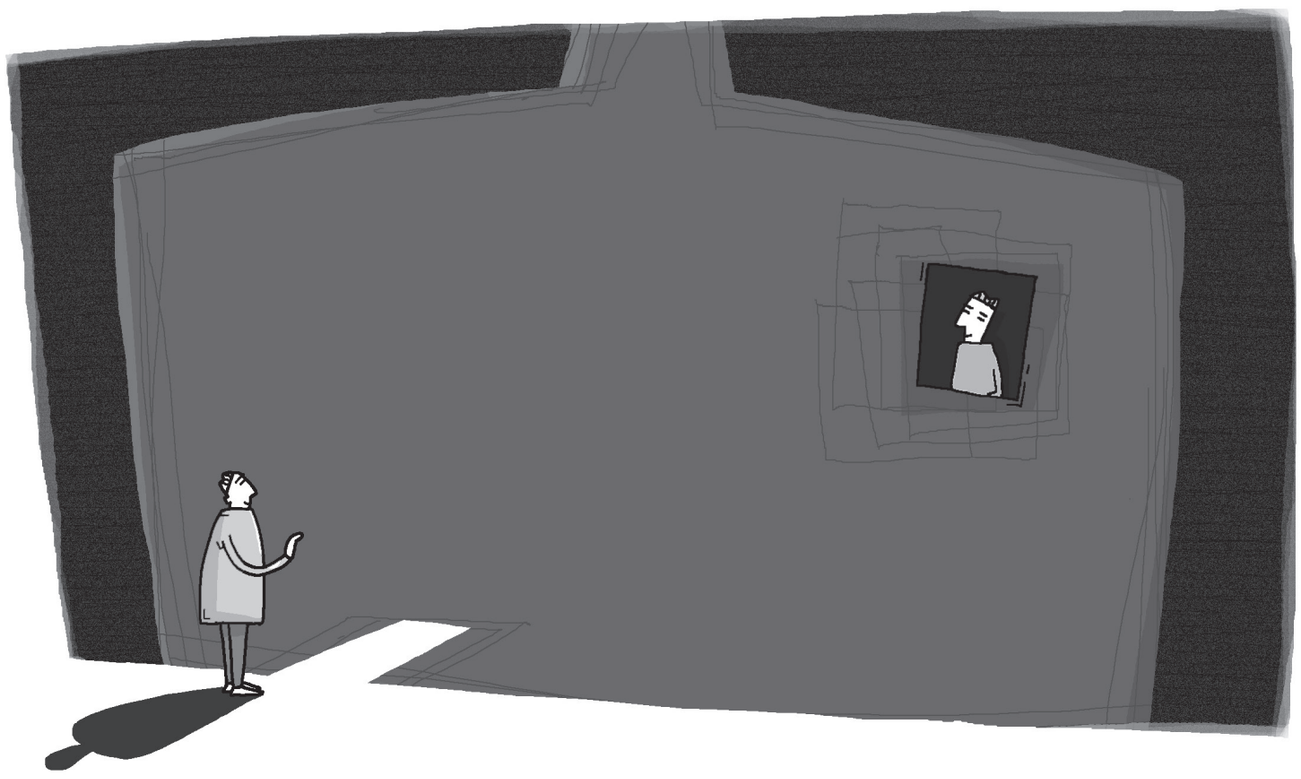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생각을 잘못 낸다면 이 동네가 망합니다. 이 몸도 한 집이자 한 동네이자 한 우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이 세상에 나와서 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지구가 있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신 걸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우주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크다기보다는,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도 광대무변하니 여러분은 마음을 좁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집들이 전부 성냥갑 같고 쓰레기통 같아요. 쓰레기장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내고 보수를 하고 그러는 걸 가만히 볼 때, 개미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그 콩나물시루의 콩나물 하나와 같은 내 몸뚱이가 '나만의 나'인 것입니까? 내 몸이 공하고 내 사생이 다 공해서 모두가,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에 끄달리거나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좁다면 고독하고 편안치 못하고 끄달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부처님 모셨다는 걸 알듯이 그렇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끝 간 데 없이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침마다 무슨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또 삼천 배를 하고 백팔 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한 번 손을 합장하고 한 번만 마음을 잘 먹으면 삼천 배를 할 수도 있고 삼만 배를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체를 들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건만 어째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복잡하게 갖습니까?

바깥으로 찾다 보니 이름 찾아야지, 또 일일이 높은 사람 찾아야지 낮은 사람 찾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 따로 찾고 귀 따로 찾고, 코 따로 찾고 입 따로 찾고, 바른팔 왼팔 모든 걸 따로따로 찾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여러분 각각이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효대로 그걸 곳곳이 찾아야 하니 그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러니 그냥 '머리' 하면 전체가 들어가지만 '머리카락' 해 보십시오, 헤아릴 수가 있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의 잠재의식 카세트로부터 그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자체가 바로 각본대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 그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아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면서 우리 지금 실생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에도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현실의 여러분은 잠재의식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종 문서예요. 종 문서를 짊어지고 나오셨으면 그 종 문서를 태워 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먹고 싸고 잠자고 가고 오고, 이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고 그대로 법이에요.

여러분은 '고가 있다' 또 '업보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런가' 하시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인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끝 간 데 없는 그 법의, 바로 법음과 더불어 자력, 광력, 전력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만 가지로 닥치는 것을 못이나 쇠 부스러기에 비유한다면, 자석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대로 자석이 돼 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그대로 시대를 잘 검토한다면 그대로 견성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 업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 내가 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들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공했는데 들고 있을 건 뭐 있습니까?

내 나무에서 내 실과를 무르익혀야 제 맛이 나고, 바로 내 나무 속에서 생산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 수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생산처가 되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